

쏟아지는 '금빛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밤

수영 박태환 아시아新 3관왕 향한 힘찬 출발

女 정구단체 4연패 유도 황희태도 '금'

'마린보이' 박태환(경기고·17)이 본격적으로 도하의 금빛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 여자정구 대표팀과 유도의 황희태(상무)도 금메달을 추가하는 등 한국은 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4일(오후 8시 현재)까지 열린 경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추가, 국가별 순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4개로 중국(금 29, 은 11, 동 7), 일본(금 7, 은 10, 동 10)에 이어 3위를 달렸다.

한국수영의 희망 박태환은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47초12에 물살을 갈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지난 8월 캐나다에서 열린 범태평양수영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1분47초51의 아시아신기록을 0.39초 앞 당긴 것이다.

라이벌인 중국의 장린은 0.73초 뒤진 1분47초85에 들어왔다. 자유형 400m(5일)과 1,500m(7일)를 남겨놓은 박태환은 이로써 목표포 잡았던 대회 3관왕이 유력해졌다.

박태환이 3관왕을 이루면 1982년 뉴질랜드 대회 최윤희 이후 24년만에 경영 3관왕이 탄생하게 된다.

김경련(안성시청)이 이끄는 정구 여자 대

유도 '금' 황희태 누구?

신안 출신... "키워준 누나들에 감사"

"누나들 고마워요"

신안출신 황희태(상무)는 4일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9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저를 키워준 누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황희태는 1남5녀 가운데 막내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모든 사랑은 당연히 그의 몫이었다.

그러나 황희태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타고난 체격 덕분에 목포 삼학초교 시절 씨름을 시작한 황희태는 홍일중에 진학하면서 유도로 전향했다. 문태고로 진학한 황희태는 따뜻한 가족 사랑을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로 보았다.

하지만 고교시절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 이상으로 투병생활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역할은 누나들이 도맡았다. 합숙

표팀은 칼리과 정구코트에서 벌어진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에 2-1 뒤집기승을 거둬 정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유도의 황희태는 카타르 스포츠클럽 유도장에서 열린 남자 90kg급 결승에서 막심 라코프(카자흐스탄)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과 사이클, 남자탁구도 메달을 추가했다.

진중오(KT)와 이대명(송현고), 김영욱(경북체육회)으로 구성된 사격대표팀은 남자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1천739점을 합작해 중국(1천744점)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불링개인전에서는 최복음(광양시청)이 1천419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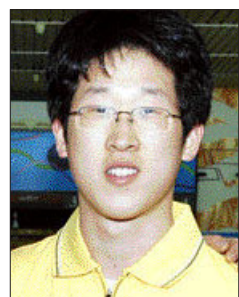
진중오는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동메달도 보였다.

박봉덕(부산체육회), 이현태(KT), 전동주(경기도청)도 남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에서 총점 1천758점을 쏘 카자흐스탄(1천762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에서는 박성백(서울시청)이 도하 시내도로 156.4km 구간에서 치러진 사이클 첫날 남자 개인도로 결승에서 3시간45분2초의 기록으로 1, 2위와 동시 간대에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3위로 밀렸다.

남자탁구는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0-3으로 완패,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연합)는 1천401점(에버리지 233.5점)도 동메달을 따냈다.

유력한 메달 후보였던 강희원(부산시청)은 1천359점(에버리지 226.5점)으로 5위에 그쳐 입상권에 들지 못했고 나머지 남자 선수 4명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진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양시청 최복음 불링 男개인 '銀'

최복음(광양시청·사진)이 도하아시안게임 불링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복음은 4일 오전 카타르 불링센터에서 끝난 남자 개인전에서 1천419점(에버리지 236.5점)을 기록, 인도네시아 리안레오나르트 라리상(1442점·에버리지 240.3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 부산 세계불링선수권대회 3인조에서 2위에 올랐던 최복음은 이로써 불링 종목에서 남녀 통틀어 첫 메달을 딴 주인공이 됐다.

마흐무드 아메드 알아트르(아랍에미리트

영광의 얼굴들... "금메달 바로 이 맛이야!"



4일 열린 경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위에 오른 박태환(사진 위 왼쪽)과 남자 유도 90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황희태가 시상식 후 금메달을 깨물어 보고 있다. 이예앞서 3일 밤 열린 정구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여자들(아래)이 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베어벡호 내일 바레인전

무조건 이겨야 조1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20년만에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축구대표팀이 6일 오전 1시45분 카타르 도하 알 라얀 경기장에서 중동의 북병 바레인과 조별리그 B조 최종전을 벌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7위 바레인은 앞서 만난 방글라데시(158위), 베트남(160위)과는 '차원'이 다른 팀이다.

한국이 A매치 역대전적 9승3무1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때 0-0으로 비겼고, 1988년 아시안컵 예선에서 0-2로 털미를 잡힌 적도 있는 상대다.

가장 최근엔 2004년 본프레레호가 출범 첫 경기로 2-0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

바레인 공격진에서는 아드난 모하메드, 후사인 모하메드, 하산 압둘라티프 등 3인방이 이번 대회에서 7골을 합작해 주요 경계 대상이다.

한국은 바레인에 다득점에서 뒤져있어 비기면 조 2위가 된다.

2승1무리엔 조 2위라도 8강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6개조 1위와 조 2위 중 두 팀이 8강에 오른다.

베어벡호는 뮌헨계 합류한 김두현(성남), 백지훈(서울) 등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된 전열을 구축했다.

원톱 박주영(서울)과 좌·우 측면의 최성국, 이천수(이상 울산), 중원의 삼각편대 김두현, 백지훈, 이호(제니트), 3선의 포백(4-back) 김지우(인천), 김동진(제니트), 김진규(이와테), 조원희(수원), 수문장 김영광(전남)은 '불변의 조합'으로 바레인전에 출격할 전망이다.

'도하맨' 박주영이 변함없이 공격을 이끌고 '패트리엇' 정주호(서울)이 뒤를 받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오늘의 주요 경기

- ▲배드민턴
△남자 복식 32강 등(15시)
- ▲농구
△여자 한국-대만(15시)
- ▲불링
△남자 3인조 결승(15시) △여자 3인조 결승(23시30분)
- ▲복싱
△남자 48kg 이하급 예선 등(21시45분)
- ▲당구
△남자 스누커 단체 32강 한국-방글라데시 등(16시)
- ▲사이클
△여자 개인 도로독주(18시30분) △남자 개인 도로독주(20시)
-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 등(14시)
- ▲체조
△남자 마루 결승(22시) 남자 안마 결승 등(23시) 남자 링 결승 등(24시)
- ▲핸드볼
△남자 한국-레바논(16시)
- ▲하키
△여자 한국-홍콩(17시) 남자 한국-방글라데시(22시)
- ▲유도
△남자 60kg급 32강전 등(20시)
- ▲사격
△남자 50m 권총 등(14시)
- ▲정구
△여자 단식 등(15시)
- ▲수영
△남자 50m 접영 등(16시)
- ▲탁구
△혼합복식 8강전 등(16시)
- ▲테니스
△남자 단체 8강전 등(16시)